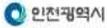


		보도자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	
		배포일자 2021년 6월 9일(수) 총 2매			
담당 부서 인재기획과	담당자 • 역량개발팀장 이현경 ☎440-7651 • 담당자 방혜림 ☎440-7655				
사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, 공공기관 최초 ‘화상강의 보조강사’ 신설
 - 비대면 교육분야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인재개발원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취업준비생, 경력단절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‘화상강의 보조강사’ 채용을 통해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.

화상강의 보조강사는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산관련 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모집해 인력뱅크 풀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며, 올해 3월부터 6명의 보조강사를 채용해 화상교육 전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.

보조강사의 주요 업무는 교육생 출석 관리, 강사 및 교육생 평가일지 작성, 전산장애 발생 시 응급조치 등 주 강사를 보조해 원활한 화상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,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‘화상강의 보조강사’ 수당을 신설하고 ‘화상강의 운영 매뉴얼’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.

또한 수강생의 집중력 유지를 위해 40분 수업, 2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 개시 2일전 교육생의 개인별 컴퓨터 장비 사전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등

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보조강사였던 김자겸씨(28세)는 “군 전역 후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취업을 준비했고, 얼마 전 정규직 취업에도 성공했다”며 “보조강사의 경험이 취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”고 말했다.

조재운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은 “화상강의 보조강사 직무신설, 화상 강의 매뉴얼 제정, 인력뱅크 풀 구성 등 적극적 업무 발굴로, 양질의 화상교육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다.”라며 “화상강의 보조강사 제도의 도입이 일손이 부족한 각 급 학교, 정부 및 지자체 교육기관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 사진



<인재기획과장과 출강 보조강사들>



<강사를 지원하고 있는 보조강사>